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정민하 울리오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우요한 세례자 요한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들을 때 비로소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인사 발령으로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부임한 우요한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새로운 소임 지에서의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정사목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길, 그리고 우리 사회 어두운 곳에도 하느님의 따스한 빛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부임하기 이전에 저는 경찰사목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집회, 시위 현장에 있는 기동 경찰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과 위로를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이와 더불어 경찰서 내에 있는 '유치장'도 방문하였습니다. 수감시설로 이동하기 전, 유치장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소임은 저의 사목활동을 더욱 풍요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느님께서도 알아주셨는지, 지금의 소임지로 불러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유치인의 경우, 길게는 2주 짧게는 3~4일 내로 불구속되거나 교정시설로 이감됩니다. 즉 유치장에서 유치인과의 만남은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의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할까'에 대한 고민은 제 사목활동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어떤 유치인과의 내담 때였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그분께서는 우여곡절로 물들어있는 당신의 삶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던 찰나,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덕분에 저를 돌아볼 수 있었어요.'

유치인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 활동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 유치인도 알게 모르게 본인과 함께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치인에게 많은 말을 하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듣는 것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수감시설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아리심으로써 '희망'을 전해주시려 하지 않으셨을까, 또 이를 통해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초대하신 게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물론 경찰서 내 유치장과 교정시설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제가 체험했던 '듣는 자세의 소중함'은 잊지 않으려 합니다. 들음으로써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을 전할 수 있었던 제 체험은 앞으로의 사목활동에서 흔들리지 않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날로 물들어가는 4월, 들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저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길 기도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3월 9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가 정민하 울리오 위원장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정민하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우리는 수용자들을 바라볼 때,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인이라 낙인을 찍고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할 때가 있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과거보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십니다.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신앙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희망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라며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그분들의 마음 안에서 희망의 빛이 되고, 하느님의 시선을 배우는 사순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 미사에는 특별히 서울대교구 발령으로 경찰사목에서 교정사목으로 부임한 우요한 세례자요한 신부의 환영식도 진행되었습니다. 봉사자들과 후원회원들은 기쁜 마음으로 신부님 환영 특송을 함께 노래하였습니다. 수용자와 출소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할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모집 미사



3월 14일(토)~15일(일) 서원동성당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교정사목 신부들은 강론을 통하여 “하느님을 알고 달라지는 수용자가 있기에 하느님의 뜻을 깊게 전하는 일이 바로 교정 사목의 중요한 역할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라며 ‘처벌’보다는 ‘사랑’이 더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정사목의 활동을 소개하며, 감옥에 갇힌 이, 범죄 피해자 가족과 출소자들에 대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모집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서원동성당 주임 신부님, 보좌 신부님과 신자분들, 그리고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설립 56주년을 맞이하여
장기봉사자들의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30년



김정애 마리아고례띠 / 서울구치소 최고수

교도관이셨던 시아버님의 권유로 교정사목에 발을 던게 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 사랑 안에서 형제들과의 만남의 시간은 참 소중한 시간이며 은총의 시간입니다. 부족한 저를 항상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명렬 켄마갈가니 / 서울동부구치소 남사

처음 교정사목 봉사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랜 기간 하리라고는 생각 못 했겠지만 지금 와 생각해 보니 시작이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가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고, 미사 시간 때 마주치는 눈빛 하나하나를 제 가족 같은 눈빛으로 보며 미소 짓게 됩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법과 하느님께서 알아 하실 일이고 저는 따뜻한 마음으로! 상담할 때도 엄마 같은 마음과 진심으로 걱정하고 같이 고민하며 사회에 나갔을 때를 의논합니다. 교정사목 봉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힘이 있을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정화자 안젤라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낳고 시작한 교정봉사가 30년이나 되었습니다. 제 삶의 여정 중에 가장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한 시간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싶습니다.



감순옥 안나 /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교정사목 봉사자의 길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혼자서 했다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신 봉사자님들! 감사합니다.



박용해 그레고리오 /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20년이라는 소식을 듣고 보니 비로소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간간히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이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 감사 찬미 올립니다.



박경애 루시아 /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하느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에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20년의 세월을 은총으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허락하는 날 까지 빛과 소금 되어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미정 세라피나 / 서울구치소 최고수

처음 서울구치소 교정봉사를 시작하던 날의 긴장감을 떠올려 봅니다. 낯선 공기 속에 첫발을 내디뎠던 그날로부터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며 깨닫는 것은, 거저 먹은 나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담장 너머에서 형제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도와 얘기들을 통해서, 제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형제님들에게 많은 위로와 복음을 선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강연희 임마꿀라따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황금, 소금, 지금,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here & now' 바로 '지금' 소중한 이 순간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들과 함께함으로써 오히려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은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구구절절한 모든 것들이 꼭 이루어지고 한순간이라도 죄에서 벗어나 잘못을 깨닫고 평화의 쉼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성필 사도요한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처음에는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을 보고 대단하다고 여겼습니다. 지금도 한결같이 봉사하시는 그분들을 따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분류심사원을 가면서 저를 돌아보는 감사한 시간임을 느끼고 있고 함께하시는 분들과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있음을 느낍니다. 감사드립니다.



설현천 사도요한 / 법인 이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가족이 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교정 사업은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참으로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봉사해 주신 교정사목 한분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활동 한눈에 보기

● 교정시설 종교집회 ●



서울남부교도소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서울동부구치소

● 교정시설 교육 및 행사 ●



인성교육



취창업교육



서울북부보호관찰소

● 봉사자 활동 ●



봉사자 피정

봉사자 교육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 윌레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윌레 미사



5월 야외 미사

11월 사형수 위령 미사

● 후원회원 모집 미사 ●



1월 당산동성당



3월 성내동성당



3월 서대문성당



9월 아현동성당



11월 양재동성당



11월 구로1동성당

율리오 신부님께

예수님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지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늘 마음은 이 죄인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엣그제가 새해 아침이라 하였는데, 벌써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웠던 긴 겨울은 어디론가 가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계시는 위원회 형제님과 자매님들께서도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 또한 많은 분께서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예수님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신부님 이곳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다 보니 이제는 건강도 안 좋아지고 어느덧
나이 70이 되고 보니 성경책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신부님께 편지 자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 가지고 있던 희망도 내려놓아야겠지요.

제 목숨이 다하더라도 이 담장 안에서 지내다가 밖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부님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환절기에 신부님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6. 03. 09

부산에서 000 형제 드림

※ 부산에 있는 교정시설에서 사형확정자로 생활하며 '바보의 나눔 지정 기탁'으로 매월 영치금을 지원받는 형제님이 정민하 신부님께 보내는 안부 편지입니다. 형제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부활을 축하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빅소식

2026년 5월 후원회원을 위한 야외미사

5월 월레미사는 후원회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야외미사로 봉헌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위해 늘 함께하시는 후원회원 및 봉사자들이 신부님과 함께 자연 속에서 뜻깊은 미사도 하고 더불어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일시 :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오전 9시(남산예장버스환승센터)
- ▶ 장소 : 공세리성당(충남 아산) ▶ 준비물 : 편한 복장과 신발, 따뜻한 물, 모자 외
- ▶ 접수 : 4월 24일(금)까지 ▶ 전화접수 : 02-921-5094 / 010-3732-5093
- ▶ 회비 : 1만 원 (우리은행 1005-903-307477 /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1. 전화접수(성함/연락처/주민번호) 2. 실명 입금 확인 3. 접수 확정

* 주민번호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행사 알림

- 4월 6일(월)~10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수원구치소 남사
- 4월 13일(월) 10:30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레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13:30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66차 정기총회 / 가톨릭회관 205-2호
- 4월 14일(화)~16일(목)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서울구치소 남사
- 4월 15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4월 18일(토)~19일(일)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모임 미사 / 문래동 성당
- 4월 20일(월)~22일(수)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인천구치소 남사
- 4월 20일(월)~24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서울남부교도소
- 4월 27일(월)~30일(목)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남사
- 4월 29일(수)~5월 1일(금) 대표 봉사자 연수 / 자비의메르세다리아스 피정의 집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4/2/16~3/15)

2026년 2월~3월에는 김태웅, 고흥욱묘장, 홍연숙 프란체스카, 서원동성당 강남주안젤라 외 28명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정자, 신규식, 서원동성당 김미희 소화데레사 외 52명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 후원 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02)921-5094 / 교정사목 휴대전화 010-3732-5093 ♥